

2012 Autumn

Vol. **74**

희망미소

www.kclf.org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희망의 과수원을 지키는 방풍망처럼



신 희 영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회장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학교실 교수

지난 8월 말, 역대 4번째라고 하는 대형 태풍 볼라벤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일 년 동안 씨앗에서부터 싹을 틔워 무럭무럭 자란 벼들, 꽃을 피우고 애써 열매를 맺은 과일들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후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뉴스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들 중, 유난히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풍망을 설치한 과수원들은 강풍을 동반한 태풍에도 낙과 피해를 70%까지 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형성되어 무섭게 접근하는 태풍과 같이 소아암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크나큰 어려움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저는, 건강하게 뛰어 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한 충격과 슬픔에 절망하는 부모님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소아암은 아이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반드시 몇 나라는 어쩔 수 없이 태풍을 만나야 하듯이, 해마다 전 세계의 어린이 중 일정한 수의 어린이는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암'을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걸려야 하는 '확률의 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갑작스럽고 무서운 태풍으로부터 어린 과일들을 지켜 주는 방풍망처럼, 예고 없이 닥쳐온 병마와 씩씩하게 싸워 나가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든든히 지켜주고 지원해 주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 한분 한분의 정성을 모아 그 어느 방풍망보다 더 안전한 방풍망을 만들어 어린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희망의 과수원을 잘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터널 끝 빛을 향해

2009년, 우리 경이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책가방을 메고 있는 것만 봐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에 모든 일을 스스로 잘 하는 편이라 더욱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1학년 여름방학쯤 밤낮 없이 소변을 자주 보기 시작했다. 여름이라 음료수를 많이 마신 탓이라고 생각했다. 2학기 말쯤, 경이가 화장실을 자주 가서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는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병원에서 뇌하수체 이상으로 인한 요붕증으로 진단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불편하지만 약만 잘 복용하면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지냈다. 그 후 6개월 정도 지나자 아이가 어딘지 많이 아파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기운 없이 가라앉기도 했다. 병원에 상태를 문의하니, 호르몬제 투약으로 인한 것이며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리고 5개월 후, 경이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급기야 아이는 욕을 하고, 박수를 치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신과, 신경외과를 거쳐, 혈액중양과에서 배아세포종(뇌종양의 일종) 진단을 받았다. 종양의 지름이 4.8cm 정도로 컸다. 불과 일 년 만에 그렇게 크게 자라다니... 그동안 우리 경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종양 때문인지도 모르고 욕한다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야단치고 훈계했던 내가, 미련하고 안일했던 내가, 죽도록 미웠다. 또 아이의 증세를 간과한 병원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커져만 갔다.

항암치료를 시작하자, 후회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엄마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위로 받았다. 완치에 대한 희망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3번의 항암

치료와 양성
자치료를 통해

경이의 종양은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다른 암과는 달리 뇌종양은 병의 후유증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거 같다. 몸과 감정의 모든 걸 관장하는 뇌에 상처가 생겼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항암치료만 끝나면 발병 전의 경이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겨울동안 경이를 지켜보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경이가 혹시 이대로 장애아로 멈춰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던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이를 참여시켰다. 처음에는 바람 씌는 기분으로 다녔다. 15회기 정도 지나니, 경이는 월요일이면 선생님 만나러 가야한다는 걸 스스로 기억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움츠렸던 마음이 많이 밝아졌다. 자신감도 생기고 목소리도 커졌다. 물론 기억력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 무엇보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서 열린 마음으로 치료를 받는 거 같아 더 없이 흐뭇하다. 그리고 엄마인 나도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과 달라진 경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처음부터 다시 키우는 마음으로 조금씩 하지 말고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 엄마의 안정적이고 평온한 정서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 같다.

지난 일 년 반을 돌아보면 길고도 혹독한 암흑의 터널을 지나온 거 같다. 그리고 이제 터널 끝의 밝은 빛이 점점 크게 다가오는 거 같다. 경이와 나는 그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거다.

* 경이는 2011년 2월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2011년 9월 치료종결하였습니다. *

친구들아!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



박 나 희

1993년생
2007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2010년 치료종결
현재 신라대학교 사학과 1학년 재학 중

T0.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안녕? 멋진 친구들아!

너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겠지?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니? 그렇다면 긴 여정을 끝냈을 때의 기분이 어떨지 한 번 상상해 봐! 어때? 너희들이 항상 이 기분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주었으면 해.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는 너희는 한결음 더 성장해 있을 테니까!

난 중학교 2학년 때,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이라는 병을 진단 받았어. 아프기 전, 난 친구들과의 싸움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어 했었지. 옆친 데 덜친 격이랄까? 마음이 힘들고 지치니깐 몸도 힘들고 지쳐버리더라. 처음에 감기처럼 아파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갔었지만 열이 쉽게 내리지 않고 턱과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동네 병원에 서는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겠냐는 말을 하더라고... 큰 병원에서 생전 처음해 보는 각종 검사들, 바삐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 모든 풍경이 생소하고 불편하기만 했어.

불편함을 안고 6인실에 들어섰을 때, 병실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 스님처럼 동그란 두상과, 햇쭉하고 창백한 얼굴,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것은 나이가 정말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어.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치료일 텐데,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해 보였어. 그리고 오히려 머리카락이 있는 내가 그 '대단한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졌어. 이후 나 역시 그 '대단한 아이들'처럼 약물치료를 받게 되고, 독한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견디기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단다.

치료를 받다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 좀 더 날 많이 사랑해줄 걸, 아껴줄 걸하고 후회가 많이 됐어. 하루하루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 예전의 행복했던 순간들 보다는 불행했던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나게 되더라고. 결국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지고 나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어. 그리고 나약해지기까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

그런데!! 어느날 새까만 밤하늘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조그마한 별처럼 가족 생각이 빛나기 시작하더라. 항상 병실에서 가슴 졸이며, 철없이 부리는 투정과 짜증을 한결같이 다 받아주고,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엄마, 얼마나 힘들실까? 그리고 타지생활을 하며 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곳곳이 가족을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아빠. 한 번도 아빠의 눈물을 보지 못했지만, 당시 아빠가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 마지막으로 나 때문에 가족 없이 혼자 외로이 고3 생활을 보내야 하는 오빠, 다들 날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 순간부터 나는 마음을 달릴 먹기로 했어. '나의 최선은 병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먼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버리자라는 마인드컨트롤이 필요했어. 마음이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 긍정적 생각을 하며,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노력했어. 나의 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했고, 또 다른 하나의 별, 병실 친구들을 생각했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의지할 수 있었어. 매일매일 함께 병실생활을 하다 보니 또 다른 가족 같은 느낌이었지. 이렇게 병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니, 어렵고 힘든 치료기간이

빨리 지나간 거 같아. 그리고 정들었던 친구들, 한 명, 한 명,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걸 보면서 나도 곧 이 긴 여정을 끝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갖게 되었어.

하지만 친구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순간도 있었어. 한순간에 일어난 일. 난 무서움이 먼저 앞서더라. 정들었던 친구가 그렇게 가 버리고 나니, 공허함과 허탈함에 이렇게 치료 받고 있는 내가 뭐가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슬펐어. 아직 살아있는 나를 보며, 먼저 간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건 하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시간인 거 같았어. 그렇게 난 특별한 10대를 보냈던 거 같아.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 순간순간 이겨낸 과정들이 쌓여 날 더 성장하게 만들었으니까.

치료받는 동안 열심히 사이버학교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 다시 돌아 온 학교, 새 출발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아프기 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를 또 받을까 두려웠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가가기가 꺼려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외래를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석하는 날도 많았지. 병원에만 있었던 터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끼여 들기가 힘들어지고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때 친구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상담도 받고, 자주 울기도 했어.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런 것으로 힘들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때, 고민을 들어주고, 용기를 준 멘토가 있었어. 멘토의 도움으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친구들에게 다가갔고, 친해지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거 같아. 그 후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 있었어. 친구를 사귈 때는 항상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너의 마음

을 알아 줄 수 없어.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용기를 가져! 고등학교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 어려움 속에서 또 난 성장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준 멘토가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었어.

난 참 많은 사람들에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 나도 이 도움과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사랑 드림밴드'라는 활동을 했었거든. '한사랑 드림밴드'는 아픈 친구들 중, 기타나 드럼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지금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도 나서서 이렇게 멋지게 밴드 활동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어. 처음 배울 때는 많이 서툴고 어려웠지. 수많은 연습과 노력으로 서로서로 맞춰 가며 멜로디를 맞춰 나갔어. 그리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새해, 치료 종결 잔치 때 등등, 우리는 병실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어. 병실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린 꼬마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나의 마음을 찡하게 하더라. 병실에 있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나의 연주로 아이들이 즐거워 한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건 정말 가슴 벅찬 일이야. 비록 밴드활동은 2년으로 끝이 났지만 나에게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값진 경험이었던 거 같아.

그리고 지금 난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어.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와 달리 자유로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하지만 자유란 책임이 꼭 뒤따라야 해.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스스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에 익숙하지 않았어. 지금도 계속 맞춰가고 있는 중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동안 쌓고 쌓은 경험으로 힘든

일이 닦쳐왔을 때, 난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대처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학교는 자기 하기 나름이야.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는 건 중요치 않아. 열심히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노력하는 사람 편에 서있는 걸! 지금 입시준비 하는 친구들! '대학교 어디 가야 하지? 성적이 이런데 학교에 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대학교에 들어 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하고 느끼게 될거야.

지금 나는 대학교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아픈 친구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너희들도 잘 해 낼 수 있을 거야! 힘든 고민이 있으면, 항상 주위에 말했으면 좋겠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바보 같은 일이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야. 아! 그리고 치료를 끝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우울할 때가 종종 있을 거야. 그렇다면 멀 하나 배워 봐. 운동이러든지 아님 영어러든지. 난 영어회화학원을 다녔는데 참 좋더라. 영어는 말할 때, 리액션이 많잖아. 영어하면서 리액션을 같이 배우고 오버하면서 공부하니깐 즐겁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 같았어. 영어회화 배우기를 추천하고 싶어.

병실에 누워 있었던 우리들에게 현실은 까만 밤하늘과 같아. 그 새까만 밤하늘에 희망과 용기, 내일과 미래, 우정과 사랑, 친구와 가족과 같은 별들을 수놓아 보자! 조금할 필요는 없어. 하나하나 반짝이는 별들을 찍다 보면, 새까맣지만 하던 하늘이 밝은 하늘, 그리고 찬란한 하늘이 될 거야!



from. 나희



감시자가 있어야 작업할 수 있는 날들...
바람도 살살 부니 다음엔 감시자와 함께 자연 속으로!
나도 감시자도 당신도 당신 친구도 모두 모두!

글·그림 소복이.
sobogi.net



나눔 바이러스는 이렇게 번져 나갑니다.

소아암 어린이에서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멋지게 변신한 홍슬기 후원자님!
그녀가 전하는 나눔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에 가슴을 축축히 적셔주는 단비 같았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나눔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Q. 2003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꾸준히 후원했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소아암 치료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을 거 같은데, 힘든 과정에서 후원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A. 아무래도 제가 치료받는 2년 반이란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 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았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죠.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 돌려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와 가족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완치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적은 돈이라도 후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용돈을 받아서 썼는데 그 용돈을 조금씩 모아 후원을 하게 되었죠. 돈을 벌면 그때 후원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때쯤 또 다른 핑계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Q. 후원 이외에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A.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 영어 학습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공을 살려 벽화그리기(소아암 바로알기 캠페인) 자원봉사에 몇 번 참여했습니다. 제 전공이 문화예술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적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다른 완치자 친구들을 보니, 병원에 찾아가 만들기 체험을 같이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Q. 사실 요즘은 자기 일을 하기에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후원도 후원이지만, 시간을 내서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 멋져요! 지금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엄마와 저는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순간순간을 즐거운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시트콤처럼요. 엄마와 나만의 암호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 중에 제 이상형에 가까운 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하^^: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 '과연 나을 수 있을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등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순간을 가족과 연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여전히 제게 힘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 지금 치료 중

인 가족들도 걱정보다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Q. 그럼 마지막으로 나눔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도 전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A. 정말 시작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작하

지 않았다면 돈을 벌게 된 지금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와 상황들로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미루어 두었다면 그렇게 흘러가 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때 바로 시작하세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홍슬기 후원자는 2003년부터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나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또 다른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이야기

- ‘덕분에 치료 잘 마쳤어요. 또 다른 우리 같은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라며 수줍게 후원금을 내미는 어머니
- ‘택배요~!’ 택배를 받아보면, 영양가득 마음이 담긴, 양파, 굴, 토마토 등등, ‘집에서 농약 안치고 정성껏 키운 거예요. 지금도 심터에 아이들 많죠? 나누어 주세요!’ 라는 수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
- ‘제가요, 예전에 소아암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요. 힘들었지만, 소중한 기억이고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후원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도 하고 싶어요.’ 어느 회사원의 이야기
-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심터 어머니

조혈모세포이식 시, 소아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인 어려움과 효과적인 대처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친구들, 안녕? 나는 친구들이 병원에 왔을 때마다 도와주는 최선의 전문 간호사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게 된다고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란 말 아세요? 적을 잘 알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혈모세포이식! 잘 알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조혈모세포이식이란?

친구들 몸 안에 골수라는 공장이 있고, 공장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라는 상품(혈액세포)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상품들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에 없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요. 열이 나고, 어지럽고, 코피가 자주 나는데 잘 멈추지 않고, 푸른 멍이 드는데 잘 없어지지 않아 공놀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 여러 가지 치료방법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혈모세포이식은 공장(골수) 안에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라인(조혈모세포)을 바꿔주는 거예요. 전에 불량한 상품을 만드는 생산라인을 없애고, 건강한 생산라인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한 생산라인(조혈모세포)을 내

몸 속에 넣어 주어요. 건강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줄 건강한 생산라인인 조혈모세포를 공여자로부터 받아서, '히크마크테터'라고 하는 가슴에 단 줄을 통해 몸 속에 넣어요. 수혈하는 것처럼 말이죠! 건강한 생산라인(조혈모세포)이 내 몸 속에 자리를 잡아 잘 가동되면, 아프고 불편한 게 사라져요. 조혈모세포이식 후에 백일 동안 생산라인(조혈모세포)이 내 몸 속에서 잘 자리 잡게 되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일 년 동안 검사를 받게 돼요.

조혈모세포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치료받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1. 규칙적으로 지내요.

무균실에서는 밥먹기, 약먹기, 운동하기, 일기쓰기, 일찍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문 간호사 **최선희**

자기 등 생활계획표를 만들어서 지내요. 그리고 잘 지켰을 때는 칭찬스티커를 붙이면서 스스로를 칭찬해 줘요.

2. 깨끗하게 생활해요.

손 잘 씻고, 샤워하고, 가글 잘 해야 해요. 코나 귀, 배꼽은 만지면 안돼요!

3. 화를 풀어요.

화를 잘 푸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화는 '스트레스' 라고도 해요. 화는 참거나 내는 게 아니고 푸는 거예요. 화를 참다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소중한 분께 나도 모르게 화를 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분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후회 하며 마음 아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를 잘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장난감 놀이, 책 읽기, 음악 듣기, 게임 하기, 만들기 등,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해봐요. 담당 의사나, 간호사, 집에서 응원하는 가족들, 옆 병실 형, 누나, 동생, 학교 친구, 선생님들께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봐요. 그리고 퇴원 후에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적어 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고요? 그럼, 먼저 사과하는 용기 있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4. 내 상태를 말로 표현해요.

아프다고 울거나 소리만 지르면, 우리 친구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지 알아 들을 수 없어서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나는 배가 아파요. 아픈게 1점에서 10점까지라면, 4점 정도예요.', '삼킬 때 마다 목이 아파요.', '가려워요. 주사를 맞으면 그때만 괜찮고 바로 또 가려워요.'라고 정확하게 말해 주면, 의료진 선생님들이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5. 주문을 외워요.

어른들이 우리 친구가 하고 싶은 건 못 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나요? 내가 받은 고타운 조혈모세포가 잘 자리를 잡고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노력하고 도와줘야 해요.

비밀 하나 알려 줄게요! 친구들 몸 안에는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퍼파워 진통제가 있어요, 이름은 엔드로핀! 감사하고, 사랑하면 모르핀이라는 진통제보다 이백배 더 많은 효과가 있는 엔드로핀이 나와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잘 되도록 도와 줘요. 그럼 강력한 수퍼파워 진통제 엔드로핀이 나오는 주문을 알려 줄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싸이폴아! 힘내서 조혈모세포가 내 몸 안에서 잘 자리잡게 해줘!'같은 주문이에요.

어때요? 친구들! 조혈모세포이식의 세계여행! 재미있었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면, 어려운 조혈모세포이식도 거뜰히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껏 응원할게요! 아자! 아자! 아자!



아이와의 기싸움

저 : 메리 커신카 역 : 안진희

출판사 : 북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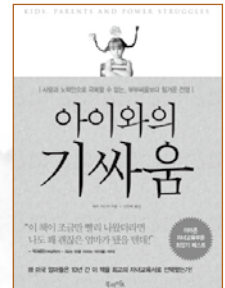
>> 소개의 글

부모와 아이의 기싸움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양쪽이 서로 으르렁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온힘을 다해 상대를 향해 적의를 드러낸다! 문제는 부모가 아이를 제압해 이겼다고 해서 결코 유쾌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상처받고 화난 아이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게 바로 '아이와의 기싸움'이다. 갈수록 사춘기는 빨라지고,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주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격한 감정 표현도 서슴치 않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 중, 아이와 기싸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보물을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방금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스스로 없이 하고, 자기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악다구니를 쓴다면... 뭐든지 잘 하던 아이가 갑자기 혼자서는 잘 수 없다고 우기고, 숙제를 안 하거나, 염색을 한 채 귀가하거나 귀를 뚫겠다고 단식투쟁까지 벌일 때, 부모는 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회초리도 들어본다. 하지만 '아이와의 기싸움'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자신하는 부모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의 기싸움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고 애써 자위하는 부모들도 많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저자는 부모와 아이의 '기싸움'은 단순히 사랑과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기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아이가 처한 상황과 속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후 이에 맞춰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책에서는 부모의 남모름 고민과 타고난 성격 문제도 짚어주고, 잊고 지내온 부모로서 각각의 모습도 냉철하게 돌아보게 만든다. 무엇보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안을 주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평소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되찾았는지를 들려주며 용기를 전달한다.

>> 책의 내용

아이가 슬프다고 말하면 당신은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가, 아니면 내버려 두는가? 아이가 피곤하다고 하면 축 늘어진 눈꺼풀이나 에너지가 떨어진 듯한 모습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아이가 바닥에 쓰러지고 나서야 반응을 보이는가? 당신은 아이가 초조할 때 손톱을 깨무는 것을 알아차리는가, 아니면 아이가 '절대 안 갈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아이가 겁에 질렸다는 사실을 깨닫는가? 당신이 아이의 일상과 삶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하기 더 쉬워진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닌다면 교사나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 관찰하라. 아이의 보디랭귀지, 목소리 톤, 눈빛 등을 놓치지 마라. 이 모두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때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5장 <아이의 감정 폭발을 진정시키는 법> 중에서

>>> KCLF

지원 결정 환아

2012. 6. ~ 2012. 8.

이식비	재활치료비				
<p>(주)농수산흡소핑 각 1,000만원</p> <p>김윤아(이차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p> <p>임나현(선천성면역결핍증/삼성서울병원)</p> <p>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신광수(뇌종양/삼성서울병원) 1,000만원</p> <p>(주)넥슨</p> <p>나경원(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p> <p>2,000만원</p>	<p>KB국민은행</p> <p>박겸(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300만원</p> <p>송예슬(뇌종양/동산의료원) 500만원</p> <p>김정우(뇌종양/삼성서울병원) 700만원</p> <p>장재원(망막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100만원</p> <p>(주)이베이코리아 옥션</p> <p>구수아(뇌종양/국립암센터) 475,000원</p> <p>장재원(망막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200만원</p>				
<p>(주)이베이코리아 옥션 각 2,000만원</p> <p>김주영(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p> <p>김지현(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p> <p>왕민준(연소형골수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p> <p>홍명보장학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p> <p>김지안(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1,000만원</p> <p>2012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p> <p>김동한(중증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병원) 1,500만원</p> <p>김태현(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800만원</p> <p>정정윤(신경모세포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800만원</p>	<p>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p> <p>구수아(뇌종양/국립암센터) 2,475,000원</p> <tr> <th colspan="2" data-bbox="525 991 899 1032">치료비</th> </tr> <tr> <td data-bbox="147 1032 525 1500"></td> <td data-bbox="525 1032 899 1500"> <p>KB국민은행</p> <p>송지훈(급성미증표현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800만원</p> <p>나향</p> <p>오현민(유잉육종/세브란스병원) 400만원</p> <p>(주)농수산흡소핑</p> <p>정성중(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00만원</p> </td> </tr>	치료비			<p>KB국민은행</p> <p>송지훈(급성미증표현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800만원</p> <p>나향</p> <p>오현민(유잉육종/세브란스병원) 400만원</p> <p>(주)농수산흡소핑</p> <p>정성중(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00만원</p>
치료비					
	<p>KB국민은행</p> <p>송지훈(급성미증표현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800만원</p> <p>나향</p> <p>오현민(유잉육종/세브란스병원) 400만원</p> <p>(주)농수산흡소핑</p> <p>정성중(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00만원</p>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경미(호지킨림프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500만원

김태현(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690만원

신동욱(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800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손채희(황문근육종/서울성모병원) 500만원

홍성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400만원

우정사업본부 각 300만원

강은오(연부조직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태양(신경모세포종/경북대학교병원)

남동철(상의세포종/삼성서울병원)

신주은(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오세연(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

원윤하(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주)토탈소프트뱅크

김가운(급성골수성백혈병/해운대백병원) 500만원

손여선(유잉육종/고신대학교 복음병원) 500만원

신아드함광철(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백병원) 300만원

홍명보장학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경미(호지킨림프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500만원

김지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신광수(뇌종양/삼성서울병원) 500만원

윤수호(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800만원

정현민(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800만원
 하수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500만원

LG전자(주)

이하윤(골수이형성증/삼성서울병원) 500만원

2012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김민건(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400만원
 김지안(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500만원
 김지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서남원(유잉육종/서울대학교병원) 800만원
 선민규(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690만원
 이서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500만원
 이채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이효리(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임기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600만원

치료비기금

신동욱(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800만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주)태진인터내셔널 각 100만원
 강은오(연부조직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원유하(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우정사업본부

각 100만원

오현민(유잉육종/세브란스병원)

이현진(골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효리(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장석진(급성전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

한국증권금융,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서원(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417,913원

정기 간접치료비(신규 의뢰 환아)

기업은행노동조합

권원천(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김민규(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김보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김연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나다영(신경모세포종/서울성모병원)

나영준(골육종/부산대학교병원)

박성찬(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서울성모병원)

이용성(골육종/국립암센터)

(주)태진인터내셔널

김동현(급성골수성백혈병/전북대학교병원)

최다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김예현(뇌종양/서울아산병원)

익명후원처

박유림(황문근육종/경북대학교병원)

가발

NH농협카드

강예령(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김가윤(급성골수성백혈병/해운대백병원)

김태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송양희(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해피빈

정수영(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 KCLF



2012. 6. ~ 2012. 8.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금자 강심숙 구경옥 김경한 김규연 김길동 김남숙 김동률 김상미 김상윤 김연정 김용천 김원경 김원규 문탐나 박범용 박상엽 박성근 박연순 박윤호 서득문 서혜빈 서혜영 손동운 송원호 신선아 신혜진 안미경 오경수 오세혁 윤철원 윤호정 이강욱 이류민 이송희 이예진 이우주 이은정 이재걸 이주옥 이지예 이형근 이혜진 이호길 이환용 이희수 임정원 장태정 전광호 정규철 정인호 정철균 정혜련 조민준 조한주 조희봉 주애리 주현옥 차혜정 채유리 최윤정 최인숙 한지영 한희지 홍성범

일시후원

김대건 김도환 김성우 김연준 김용주 김은미 김하늘 김현숙 김현우 노우진 박선민 박종범 손유선 신경숙 신지우 신화숙 안광춘 연희수 오현정 이가영 이명도 이미정 이민희 이서진 이은선 이지혜 이태근 이혜승 정연주 조만휘 조성하 천정아 최연수 최태근 한정석 홍종욱 황진하 강원대학교봉사동아리청원 꿈나래어린이집 나서영(심심) 송파청소년수련관 양림교회아동 에덴이쁜선생님 청담 학성여고3학년5반 LG디스플레이

후원물품

김경민 과일 김도윤 음료 김민규 과일 김수용 수건 김정순 쌀 김지연 인삼 김지호 도서 김희준 과일 배성민 감자 선민규 상품권 유한서 선풍기,음료 이건수 생필품 이동건 과일 최민근 양파

헌혈증 (매)

강희석(8) 권문재(4) 박상욱(2) 박상현(10) 박찬홍(50) 배건호(7) 이강욱(4) 이현정,최영규(5) 이호용(3) 정상봉(9) 천강재(6) 강원대학교 봉사동아리 청원(12)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40) 인피니트 팬페이지 '누나피릿'(101) 디시인사이드 이제훈 갤러리(25) 명문고등학교 학생회(250) 뮤지컬 시카고(2,000) 신구대학 방사선과(120) 신세계인터내셔널(159) 이글루시큐리티(32) 이동욱 팬클럽 '하천욱'(19) 이술교육(100) 전인CM(28)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사(3) 한성여자고등학교(33) 헌사모(40) APT종로점(100)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 체 국 : 012989-01-003327
농 협 : 029-01-176943	우리은행 : 112-04-112571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사랑의집에서는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순돌왕자의 돌잔치



한 달에 한번, 같은 달 생일인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병원에서 진행됩니다. 6월 생일잔치에서는 백일이 지나 입원한 순돌왕자 성찬이의 돌잔치가 겸해졌습니다. 돌잔치 하이라이트! 성찬이는 돌잡이로 연필과 국자를 잡았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기막힌 해석, '유학과 멋진 셰프가 되겠구만!' 성찬이는 얼마 후면 모든 치료를 종결하고 퇴원합니다. 주말만 모든 기구를 꺼내 씩씩하게 셰프연습을 하고 있을 성찬이를 그려봅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해피빈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소중한 인연들, 대박나세요!



2009년부터 함께한 이민희, 그리고 2010년부터 함께한 이민정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매주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 손길이 필요한 각종 행사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타나 함께해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계의 든든한 두 기둥이었던 이 두 분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당당히 구직하여, 사회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쌓인 만큼 이별의 아쉬움이 크지만,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되니 기쁨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든든한 이웃



우체국 한사랑의집은 2층 주택입니다. 꿈에 그리던 2층 집이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틈틈이 이곳저곳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방충망 수리, 번기 수리, 배선 수리, 배수관 점검 등등.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만, 정성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서울 지역의 우체국 한사랑의집에서는 한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의 전화가 뜰 때는 전화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 어디 고장난 데는 없어요? 괜찮죠?'라고. 정 많고 든든한 이웃이 있어 감사하기만 합니다.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가을의 문턱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창문을 열면, 아직 때미소리 가득한데 풍경은 가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이 시원해지고, 주변 논밭의 벼들은 고개를 숙여 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머물고 있는 가족들은 이제 창문을 닫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익어가는 벼들을 보며, 지금의 힘든 치료가 저 벼들처럼 완치의 결실을 맺기를, 가을의 문턱에서 희망을 품습니다.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싱싱한 밥상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우체국 한사랑의집 텃밭 식물들이 햇빛을 듬뿍 먹고 쭉쭉 자랐습니다. 완치자 나희 아버님이 지난 봄, 심어준 토마토, 상추,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 밥상에 올라갔습니다.

매주 토마토가 열리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자기가 수확하고 싶으니 따지 말고 놔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여름 내내 우체국 한사랑의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희 부모님의 사랑의 씨앗이 많은 결실을 맺고, 많은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화과자 만들기



기슴 졸이며 항암치료를 받고, 간병했던 소아암 어린이 가족! 이날 조금은 모두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몰입하여 멋진 화과자를 만들고, 부모님들은 영화를 관람하며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지만 달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컵 그리고 화분 만들기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을 위한 도예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에 단하나 뿐인 컵과 화분을 만들면서, 가족들은 내내 행복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하천옥(배우 이동욱 팬클럽)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어린이연극 구름빵 관람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이 연극의 메카! 대학로로 출동하였습니다. 비오는 곳은 날씨에도 모두모여 연극 구름빵을 관람하였습니다. 신나는 동요도 따라 부르고, 율동도 따라하면서, 모두 구름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리바트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내 손으로 만드는 세상



2012년 8월부터 매달 한번씩, 삼성물산 임직원 동호회 분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특별한 만들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8월에는 우드아트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틀로 만들기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의 감각적인 손놀림으로 모두 다른 작품이 되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삼성물산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KCLF 희망소식

새봄유치원 바자회 수익금 전달



6월, 새봄유치원에서는 소아암 어린이 돕기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12년째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모아진 후원금,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새봄유치원 어린이, 관계자 및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ive THEY 2012' 공연 수익금 전달



지난 6월 23일, 인디밴드들의 합동 콘서트 'Live THEY 2012'가 열렸습니다. '나눔'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에서는 아티스트 애장품 경매, 후원쿠폰, 도서 판매 등 다양한 나눔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해 준 관객 여러분과 마스터플랜, 해피로봇, 예스24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수의나라 수오미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순둥이 물티슈 판매시 100원씩 적절한 금액과 임직원의 후원금을 모아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순둥이 물티슈 200팩도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호수의나라 수오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뮤지컬 시카고 헌혈증 전달



뮤지컬 시카고팀에서는 200회 공연을 맞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헌혈증 2,000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헌혈증 소지 관객에게 티켓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통해 뜻 깊은 헌혈증이 모아졌으며, 200회 공연에 소아암 어린이 및 치료종결자 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해준 신시컴퍼니와 뮤지컬 시카고팀, 관객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피니트(INFINITE) 팬페이지 '누나피릿'



인피니트 팬페이지 '누나피릿'에서는 6월 9일, 인피니트의 데뷔 2주년을 맞이하여 발매된 'INFINITIZE' 앨범 20장과 함께 헌혈증 101매, 해피빈 콩 6,969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함께해 준 인피니트 팬페이지 '누나피릿'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균 마스크 나눔



소셜펀딩 개미스폰서 159명의 나눔으로 소아암 어린이가 300명에게 항균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응원이 되길 바랍니다.

롯데닷컴 희망씨앗



희망씨앗은 기부상품입니다. 롯데닷컴(www.lotte.com)에서 희망씨앗을 구매할 때마다, 롯데닷컴이 소아암 어린이에게 1,000원씩 기부하게 됩니다. 책상 위에 작은 정원도 가꾸고, 소아암 어린이들의 희망도 키워주세요! 희망씨앗의 가격은 2,000원이며 무료배송됩니다.

캐논코리아&옥션, ALL KILL 이벤트 판매금 전액기부



캐논코리아는 옥션과 함께 실시한 'ALL KILL 캐논 프린터' 이벤트 판매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의 재활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나눔에 함께해 준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옥션 관계자와 이벤트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비밀' 관람



소아암 어린이 32가족, 112명이 가족뮤지컬 '번개맨의 비밀'을 관람하였습니다. 번개맨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배웠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EBS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자기성장프로젝트



소아암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2012 자기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의 아픔이 이젠 소중한 기억과 희망이 되었으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다는 청년들에게서 지금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후원 소아암 완치자 희망장학금 전달



8월 10일, 희망미소 소아암 센터에서 10명의 소아암 완치자에게 희망장학금(각 30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소아암 어린이 및 완치자 가족, 동양생명 구한서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12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형제들은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랑리본은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나눔캠페인입니다.



2012년 가을호는 KB  국민은행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188-14 인설빌딩 4층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www.kclf.org  cancer@kclf.org